

라온아띠 방글라데시팀 October Report

JEONG-RAE NOH, JI-HYUN CHOI, DO-EUN KIM, KYUNG-WON CHOI



한달간의 소중한 기억들

in Antu Da's wedding ceremony

팀 소개-**월간 일정**-활동 내용-방 팀 이야기-개인 소감

월간 일정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 Dahapara School	2 - Hindu family Visit	3 - Moving to Dhaka	4 Holiday - Bangladesh YMCA Youth conference	5 - Bangladesh YMCA Youth conference	6 - Moving to Birisiri
7 Holiday - Work on sexual education	8 - Dahapara School	9 - Welcoming ceremony for Jennifer (Y Care)	10 -Meetings for Survey / Survey	11 Holiday - Survey (Y Care)	12 -Survey Durga Puja Festival	13 -Dahapara visit -Taekyon class
14 -Holiday Durga Puja Festival	15 - Youth Program	16 -Antu Da's wedding-eve party	17 - Antu Da's wedding ceremony	18 Holiday -Sexual Education with Youth	19 -Sexual Education in Girls' Hostel	20 -Interview village guardians -Taekyon class
21 -Sexual Edu. in Ideal School	22 -Dahapara School -Gardening	23 -Visiting a village -Swimming	24 - Dahapara School	25 Holiday - Visiting Village (Rubel's house)	26	27 - GreenChallenge lecture
28 -Dahapara School -Green Challenge (movie showing)	29 -Dahapara School	30 - Counseling with Biplob Da	31 - Dahapara School			



방글라데시에서의 활동

활동 내용_ Birisiri_Work at Dahapara NFPS school

- 다하파라 학교 수업

9월 마지막 주부터 Grade 1~3를 대상으로 수학, 영어, 체육, 음악, 미술 수업을 시작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Durga Puja Festival 과 다른 YMCA 활동으로 인해 취소된 횟수가 잦았다. 또한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고, 학습 진행에 무리가 없는 2,3학년과 달리 아직 학습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방식이 아닌 함께 활동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려보고자 노력하였다.

- 다하파라 빌리지 방문

다하파라 학교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다른 마을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우리를 소개함으로써 관계 형성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가했다. 다하파라 마을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통해 이곳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경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었다.

활동 내용_ Birisiri_Work at Dahapara NFPS school

- 체육수업 by 노정래 단원



- 수학수업 by 최지현 단원



활동 내용_ Birisiri_Work at Dahapara NFPS school

- 영어/음악수업by김도은단원



- 미술수업by최경원단원



활동 내용_ Birisiri_Work at Dahapara NFPS school

- 다하파라 학생 가정 조사



활동 내용_Savar_Bangladesh YMCA Youth Conference

-Transforming the community by empowering the youth

방글라데시 전 지역 YMCA에서 각 두명의 youth들이 모여 “Transforming the community by empowering the youth”라는 제목 아래에 conference를 가졌다. Gender Equality와 Good Governance라는 주제로 이틀동안 진행되었다. 단순히 강의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토론이 함께 진행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또한 비리시리 외의 다른 지역의 Youth멤버와 노르웨이에서 온 멤버도 참여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YMCA 기부행사 참여

올해 4월에 있었던 라나 플라자 붕괴 사고로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후원해주는 YMCA행사에 참여하였다. 10명의 아이들을 선정하여 10년 간 후원해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간단한 프레젠테이션과 설명을 통해 당시 상황과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던 기회였다.

팀 소개-월간 일정-**활동 내용**-방 팀 이야기-개인 소감

활동 내용_Savar_Bangladesh YMCA Youth Conference

- YMCA Youth와 단체사진



- YMCA youth 멤버와 함께



팀 소개-월간 일정-**활동 내용**-방 팀 이야기-개인 소감

활동 내용_Savar_Bangladesh YMCA Youth Conference

- group drama production



팀 소개-월간 일정-**활동 내용**-방 팀 이야기-개인 소감

활동 내용_Savar_Bangladesh YMCA Youth Conference

- YMCA기부행사참여



활동 내용_Birisiri_Birisiri youth survey / interview

- Y Care-Birisiri YMCA youth survey

Y Care라는 단체에서 비리시리 지역의 후원을 위해 15세 이상 35세 이하 100명의 비리시리 지역 유스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아띠들은 지역조사의 일환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역 경제, 교육, 여성 인권, 생활 등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 보다 아띠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다만 설문조사 과정에서 몇몇 문제들을 관찰 할 수 있었는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이 다소 떨어졌고, 성실하지 못한 업무태도로 인하여 기관에서 원하는 공정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도 들었다.

-Y Care-Birisiri YMCA guardian interview

Y Care과 연계한 youth 대상의 서베이에 이어서 youth들의 부모님을 인터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거나 가족 기르는 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자식과 부모간에 있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죽기 전까지 어떠한 재산도 잘 내어주지 않는데, 이는 자식들이 부모를 소홀이 대할까 봐서이기도 하고, 특히 아들의 경우 함부로 재산을 팔아 쓰는 행위가 빈번하여 그것을 막기 위해 죽기 전까지 물려주지 않는다고도 한다.

활동 내용_Birisiri_Taekyon Class

- 태권수업

여러 차례 행사 등 자리가 있을 적 마다 시범을 보인 태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Youth멤버들과 함께 태권 수업을 이번 달 13일 부터 시작하여 매주 일요일 진행하고 있다. 첫 수업 시간엔 간단한 태권에 대한 설명과 영상물로 태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인사법, 준비운동, 간단한 발차기 시범과 연습이 있었다. 단순히 동작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간단한 게임 등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더 많은 youth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첫 수업이었지만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이다. 이어지는 수업에서는 전에 배운 발차기 복습 및 새로운 동작들을 익히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게임을 진행 하는 등 youth member의 체육 활동 참여 도모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활동 내용_Birisiri_Taekyon Class

- 준비운동



- 발차기연습



활동 내용_Birisiri_Taekyon Class

- 최경원 단원의 시범



- 게임



활동 내용_Birisiri_Sexual Education (End Poverty Campaign)

-빈곤퇴치 캠페인

빈곤퇴치 캠페인 주 활동으로 성교육을 선정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번역을 하고,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에 약 두 달이 걸렸다. 정래 단원과 지현 단원은 남자 파트로 <섹스? 섹슈얼리티?>와 <남자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방글라어 스크립트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였고, 도은 단원과 경원 단원은 여자 파트로 <섹스? 섹슈얼리티?>와 <“NO!”라고 말하기>라는 주제로 준비하였다. 18일에는 YMCA youth member를 상대로 수업 내용 전체를 리허설 하였고, 19일에는 가로족 여자 아이들이 지내는 Girls' Hostel을 방문하여 위의 세 주제와 <바른 언어로 성 이야기 하기>, <자기방어>, <행복한 만남>이라는 세 주제를 가지고 성교육을 하였다. 단지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토론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을 가질 수 있었다.

활동 내용_Birisiri_Sexual Education (End Poverty Campaign)

- Birisiri YMCA youth 대상 성교육 리허설



- Girls' Hostel 여학생 대상 성교육



활동 내용_Birisiri_Sexual Education (End Poverty Campaign)

- Ideal School 남학생 대상 성교육



- Ideal School 여학생 대상 성교육



활동 내용_Birisiri_Sexual Education (End Poverty Campaign)

- Ideal School 남학생 대상 성교육 단체사진



- Ideal School 여학생 대상 성교육 단체사진



활동 내용_Birisiri_Sexual Education (End Poverty Campaign)

- Girls' Hostel 단체사진



- Ideal School 단체 사진



활동 내용_Birisiri_Green Challenge

- Green Challenge 강의 및 Earth Planet 다큐멘터리 상영

방글라데시 전 YMCA에서 실시하는 Green Challenge는 지구온난화와 온실효과에 관한 프로젝트이다. Birisiri YMCA에서도 Green Challenge Program의 일환으로 지구온난화와 온실효과에 관한 강의를 듣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사람들에게 환경에 관한 Earth Planet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였다.

- Green Challenge 강의



활동 내용_Birisiri_Gardening

- 텃밭 가꾸기

9월 달 정리해 놓은 텃밭에 본격적으로 씨앗을 심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텃밭의 3/5은 현지 씨앗인 무, 콩, 땡가, 보리보피를 심었고, 나머지 2/5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깻잎과 부추를 심었다. 현재 현지 작물은 싹을 틔우고 잘 자라고 있는 상태이며 한국에서 가져온 작물들은 아직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 현지 작물들은 YMCA관계자를 대상으로 팔아 Youth 활동 비용으로 쓸 예정이며 한국 작물들은 재배해 한국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데에 쓸 계획이다.

- 씨앗심기





방글라데시 팀 이야기

방 팀 이야기_Survey를 하면서

- Y Care-Birisiri YMCA youth survey

NGO 'y-care'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된 이번 설문조사에 보조로 참여하면서 과연 이 설문조사가 시행 기관이나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는 설문조사인지 의문이었다. YMCA에서 몇몇 유스 멤버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조사관으로 고용하여 설문 조사와 관련된 사전 교육을 시켰지만 책임감을 갖지 않고 설문조사에 임하는 태도(예를 들어 대상자에 대한 선정,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관에 개입되거나, 혹은 조사관 본인의 주관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모습 등) 등으로 제대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같지 안타까웠다. 이러한 현상들이 단지 이번 프로젝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다른 NGO단체에서도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니 안타까움만 남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접하고 배우는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 깨달음을 얻은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방 팀 이야기_Sexual Education을 하면서

- 빈곤퇴치 캠페인, Sexual Education을 하면서

방글라로 진행하는 성교육에 대해 고민들이 오고 갔다. 아직 방글라가 서툰 우리가 수업 내용을 방글라로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내용을 숙지한 가이드, 디폰이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라온아띠 주 활동인 빈곤퇴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우리가 직접 수업을 이끄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youth 들의 도움을 받아 대본 연습에 매진하였다. 물론 수업 중간중간 토론을 하거나 할 때에는 번역 과정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였지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며 나름 성공적인 수업을 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직접 방글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방글라 언어를 배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방글라데시에서 한달
그리고 개인 소감

개인 소감_슈보_노정래 단원

이제 드디어 두 달이 지났다. 개인적으로는 9월이 풋볼 시즌이었다면 10월은 나에게 배드민턴 시즌이 이었다. 원래 배드민턴은 방글라데시에서는 12월에 시작하는데 풋볼이 끝나니 내가 운동이 하고 싶어서 배드민턴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고 여기 youth들은 다들 배드민턴을 좋아 하며 잘하기에 나는 한국에서는 별로 좋아 하지도 잘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실력도 늘게 되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youth들과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10월은 행사도 많고 할 것도 많아서 걱정도 기대감도 많이 했었던 한달 이었다. 결혼식, 축제, end poverty, 홈스테이, survey 등 많은 활동과 기대 그리고 실망도 해서 시간이 빨리 간 거 같다. “한 건 많은데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한달?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 없이 스케줄에 나를 맞추는 거 같은 한달 이었다. 그래서 다음달은 생각하며 충분히 돌아보면 시간을 보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개인 소감_오심_최지현 단원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가는 요즘, 비로소 이방인에서 주변인이 되어가고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달라진 것인지 내가 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길가에서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을 보면 누렇게 헤진 옷이나 흙으로 범벅인 맨발에서 가난과 동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큰소리로 인사하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미소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말할 수 있음은 분명 무엇인가 변했음을 느낀다. 있는 그대로를 보기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이 곳 삶에 적응한 것인지 의문이지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만큼이나 나의 일상도, 생각도 이 곳에 맞추어 적응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 동안 항상 어느 곳을 가든 외국인이라는, 혹은 그들과 다른 걸모습에 항상 배려 받거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왔었지만 (물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와 한번이라도 관계를 맺은 이 곳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봐주기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 이방인이 아닌 그들의 주변인으로써, 친구로써 지내고 있다고 믿는다.

개인 소감_오심_최지현 단원

가끔은 혹은 여전히 라온아띠 타이틀인 '대학생해외봉사단'이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떼떼하지 못한 말이 였다. 사실 부끄러웠다. 과연 내가 이 곳에서 봉사는 고사하고 이들에게 도움은 되고 있는 지, 혹여 민폐는 아닐지, 항상 마음 한 켠에서 풀지 못한 시험 문제처럼 남아있었다. 그렇지만 요즘 문제에 대한 힌트를 얻고 있다고 할까. 적어도 '대학생해외봉사단'은 어울리는 지 모르겠지만, '좋은 친구'라는 라온 아띠의 참 뜻에는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남은 기간 동안 이들에게 좋은 친구이며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도록 마음과 진심을 다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p.s 잘 지내지만 한국 음식이 유독 그립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맺음은 고추장 튜브를 빠는 것과 함께..... 또르르르

개인 소감_오토이_김도은 단원

내 발목 밑에 오던 푸른 모종이 어느덧 내 키만큼 자라서는 겹쳐한 금 빛깔로 무르익어가고 있다. 멀리 나가 논에 가서 찾을 필요도 없이 더위가 가시고 한 층 스산해진 아침 공기에 몸을 웅크리며 시간의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다. 빠르게 스쳐간 시간을 돌아보며 10월 한 달 하루하루가 모두 행복했던 날이라고 한다면 아마 거짓말 일 것이다. 첫 달의 방방 뛰던 들뜸과 설렘이 가라 앉고 이제는 마치 이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주민마냥 Birisiri의 한 부분으로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동쪽 YMCA식당 방향을 한 숙소 방 문을 열면 햇살이 부서 어둠과 잠에 취한 눈을 깨우고, 차 마시라는 암비의 부름에 달려가 동그라미 대신 더 예쁜 별 모양 루τί를 만들고, 아름답게 가지를 드리운 브리스티 나무 아래 아무런 의자나 가져다 놓고는 책을 읽고, 쏟아지는 별이 박힌 밤하늘 아래 노래를 부르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하늘을 담아 고요한 색을 뿜어내는 습성강과 푸르게 펼쳐지는 벼 밭을 쏘다니고..... 내 주변의 것들을 나의 부족한 시각으로 미화시키고 싶지는 않다. 다만 내가 받아들이는 아름다움과 때론 아름답지 못한 것들 모두 이 장소와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의 일부라 생각하고 나도 이러한 것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솔직한 태도는 단지 이 마을과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객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곤 한다. 과거와 현재 내가 속한 것들에 전혀 관계 없는 타지로 떠나와 이렇게 발가벗은 듯 원래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이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 소감_폴리_최경원 단원

하루하루 달력에 그날의 일정을 기록하면서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고, 간단한 것은 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 Youth 멤버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언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래서일까? 어느 날 꿈에서 한국에 돌아갔는데 아는 벵갈어가 Shuvo rattri(Good night)과 같은 간단한 언어 밖에 모르는 악몽을 꾸었다. 그 후로는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만 쓰며 살다가는 정말 꿈에서처럼 되겠다는 생각에 벵갈어와 가로어를 배우려 노력했다. Mittel이라는 친구에게 가로 노래를 배우고, 다른 친구들에게 벵갈어와 가로어를 배웠다. 또한, 빈곤퇴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한 성교육을 벵갈어로 번역하여 가르치면서 벵갈어와 친숙해졌다. 이제는 가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가로어와 벵갈어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벵갈어보다는 가로어를 더 많이 배워서 다른 벵갈리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곤 한다.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남은 3달 동안은 이곳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10월은 정말 많은 행사가 있는 달이었다. Savar에 가서 노르웨이, 방글라데시 친구들과 Youth conference를 갖고 문화교류과 친목도모를 했으며, Durgapuja라는 힌두 축제와 이슬람 축제가 있던 달이었다. 운이 좋아 힌두축제를 구경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힌두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축제 전 힌두 친구의 집에 방문하여 힌두의 문화와 축제,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또한, YMCA에서 일하시는 온뚜다의 결혼식에 참여하였다.

개인 소감_폴리_최경원 단원

우리가 오는 이 시즌이 바로 결혼식 시즌이라고 했다. 가로의 결혼식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가 축하공연으로 Gentleman을 추기도 했고, 이곳의 춤과 노래를 들으며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언젠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곳 방식으로도 결혼식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국은 결혼식이 길면 2시간 만에 끝나지만 이곳은 거의 3일 간 결혼식을 한다.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도 해주고, 신랑 신부에게 빼예쉬라는 것을 손님들이 한 손가락씩 먹여주는 것을 보며 이곳은 정이 넘치는 그런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한국의 결혼식이 정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이곳보다 조금 더 엄숙한 자리라면 이곳은 조금 더 활기찬 모습이었다. 아마 우리나라의 전통 결혼식이 이곳의 분위기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수영을 제안해서 Youth member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Simsang river를 갔다. 8기와 9기의 경우에는 수영을 하러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운이 좋아 가게 되었다. 주혈흡충증에 대한 걱정이 되었으나 현지 코디네이터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는 생각과, 물이 깨끗하다는 말에 수영을 했으나, 물에서 나올 때 오염된 것들을 보고, 주혈흡충증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였다.

11월은 우리가 각자 호스트 패밀리 하우스로 가서 생활을 한다. 10월 초부터 각자 어디로 갈지 궁금해 했다. 때가 되면 자연스레 알 수 있었지만 미리 알고 싶은 마음은 한국에서나 여기에서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개인 소감_꼴리_최경원 단원

처음 집이 결정되고는 호스트 패밀리에서의 삶이 기대되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다 가기 며칠 전이 되니 이제는 정말 가족과 같은 멤버들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긴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이 있기에 무섭지는 않았다. 호스트 패밀리에 가기 전 먼저 내 새로운 오빠를 만나 이야기도 하고, 집에 놀러가면서 빨리 11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다하파라의 아이들은 정말 천사 같다. 10월이 되어서야 나는 처음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행사가 다하파라 스쿨을 가는 날짜에 겹쳤었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지만 환경이 좋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배움을 갈망하는 아이들,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아이들,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학교가기 싫어했던 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는 했으나 이 아이들처럼 행복해하지는 않았고, 때때로는 공부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시절..... 이곳에 와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생활했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에서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과 그 아이들은 나처럼 지금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웠다. 이곳에서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다. 아니 가르치는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경험시켜주고 싶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웃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 천사같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개인 소감_폴리_최경원 단원

Birisiri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다. 아침에 문득 잠에서 깨어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의 삶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있었다. 눈을 떠 이곳이 기숙사가 아닌 Birisiri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입가에 미소가 사르르 번진다. 꿈이 아니구나, 현실이구나..... 내가 만났던 모든 이들이, 이곳의 삶이 계속되고 있구나..... 그만큼 이곳에서의 삶은 꿈만 같고, 정말 깨기 싫은 그런 아름다운 꿈이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암비의 밥먹으라는 소리, Youth 멤버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 다하파라 아이들이 나마쉬깔~하며 방그르르 웃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는데도, 그립다. 9기 단원에게 Birisiri의 삶이 행복했냐고 물었다. 그때 내게 해준 말이 “이곳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행복할 수 없어요.”였다. 처음에는 그 말뜻을 알지 못했다. 처음 한 달간은 정말 한국이 그리웠고, 한국에서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었다. 이곳에 왜 왔을까라는 생각과 지금쯤 친구들을 공부하고 있을텐데 나는 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벌써 2달이나 흘렀어?, 이제 3달밖에 안남은 거야?, 벌써 11기 모집을 한다고?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 가면 이곳이 그리울 것 같다, 어떻게 견디지?라는 생각과 이곳에서의 삶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 같이 있기만 해도, 옆에 앉아만 있어도, 얼굴만 봐도 행복해지는 그런 삶, 이곳 Birisiri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 같다. 행복은 정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루하루가 꿈같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사진으로 다시 보는 방그르르















감사합니다. 돈노 밧!